

와인의 오래된 미래 ‘내추럴와인’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불투명하다. 때론 침전물이 떠다니기도 한다. 탄산이 느껴질 때도 있다. 기존 와인을 평가하는 기준에서는 완성품이라고 하기 어렵다. 근데 가격은 더 비싸다. 바로 내추럴와인이다. 와인리스트가 어느 정도 갖춰진 레스토랑이나 와인바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다.

최근 몇 년새 와인업계의 핫 이슈는 내추럴와인이다.

내추럴와인은 포도 재배나 와인 양조 과정에서 따로 화학물질을 추가하지 않고 만든 와인을 말한다. 유기농 기법을 사용하는 오가닉, 바이오다이내믹 와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보면 된다.

사실 새로운 작업이 아니다. 원래 와인이 그렇게 탄생했다. 포도를 따서 통에 넣고 으깨기만 해도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 와인이 된다. 어찌보면 내추럴와인은 와인의 ‘오래된 미래’인 셈이다.

프랑스 최초 여성 마스터 오브 와인(MW)이자 책 ‘내추럴와인’ 저자인 이자벨 르쥬롱은 “내추럴 와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본래의 와인인데 오늘날 드



아황산염(SO2) 허용량에 따라 와인을 분류했다. 일반적인 와인이 리터당 150~200밀리그램을 함유하고 있다면 바이오다이내믹 와인은 70~90밀리그램, 내추럴와인은 30~40밀리그램에 불과하다. /www.vinsnaturels.fr

문 것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내추럴와인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어느새 찾아보기 힘든 것이 되어 있었다. 포도재배부터 와인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시 되면서 와인에는 자연적인 요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됐다.

와인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아황산염 역시 내추럴와인은 필요하지 않다. 스스로 발효과정에서 생겨나는 소량의 아황산염이면 충분하다.

내추럴와인의 숨은 조력자는 포도밭의 미생물이다. 기술적인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도 와인을 살아남을 수 있게 한다. 포도밭의 미생물은 포도를 따라 포도즙과 와인으로 들어간다. 내추럴와인이

짭짤한 미네랄감을 낼 수 있는 것도 흙의 성분이 그대로 전달된 덕이다. 맛이나 질감 역시 일반 와인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게 지닐 수 있다. 어찌보면 잘 정제된 고급와인보다 더 ‘테루아’를 잘 느낄 수 있는게 내추럴와인이다.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한 와인. 머리로 이해했지만 실전은 또 다르다. 막상 불투명하고 흐릿한 액체가 든 와인잔을 보면 이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고민에 빠진다.

이럴땐 사과나 오렌지를 바로 착즙한 주스를 떠올려보자. 투명할 수가 없다. 과육이든 어떤 성분이든 ‘건더기’는 있게 마련이다. 와인 역시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발효된 포도즙일 뿐이다.

내추럴와인의 찌꺼기도 알맞은 조건하에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 그러나 일부 내추럴와인 생산자들은 이 과정이 끝나기 전에 병에 담는다. 살아있는 와인이다보니 투명하게 내뿜된 와인에 침전물이 다시 생기기도 한다.

르쥬롱은 “흐릿한 빛깔이 때로는 결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탁한 사과 주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함이 아니다”라며 “어떤 탁한 내추럴 화이트 와인들은 병을 따기 전에 흔들어서 마시면 침전물이 와인 속에 고루 퍼지며 질감과 깊은 풍미, 전체적인 균형을 더해 일반 와인들보다도 맛이 더 좋아진다”고 조언했다. /smahn1@metroseoul.co.kr



다가오는 우리 아이 입학

‘유치원복’ 학부모 관심↑

품질·안전예방 기능 확인

국내 원단·친환경 소재 사용
미아방지 유치원복 등 ‘눈길’

전국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 시즌이 다가오면서 아이들이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유치원복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인에 비해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이 입을 옷인 만큼 제품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

14일 리틀스마트는 “유치원복 선택 시, 아이를 위한 우수한 품질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 기능, 디자인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는 품질을 갖췄는지, 신축성 있는 소재와 3D 입체 패턴 같은 기능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품질부터 신뢰도까지… 비교 必

유치원복을 선택할 때는 품질, 소재, 착용감, 제품 신뢰도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프리미엄 유치원복 브랜드 리틀스마트는 스마트학생복의 제작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 오랜 교육 생산 노하우를 고스란히 유치원복에 적용시켰다. 원복 최초로 전 복종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품질 인증 마크인 Q 마크를 획득했으며 KC 인증 마크, 국산섬유제품 인증마크 등 다수의 인증마크를 획득했으며 유해물질, 발암물질을 배제한 100% 국내 생산 원단만을 사용해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입을 수 있다. 또한 각기 다른 아이들의 체형을 분석한 인체공학 3D 입체 패턴을 적용했으며 뛰어난 신축성을 가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안전 예방 기능 확인해야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줄 수 있는 기능도 중요하다. 다른 계절에 비해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에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더욱 필요하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유치원복들은 재귀반사 소재를 사용해 야간 보행 시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도 눈에 잘



리틀스마트.

띄게 만들어 안전사고 위험을 줄여주며, 팔꿈치와 무릎 등 다치기 쉬운 부분에 보호 패드를 부착해 넘어지거나 미끄러져도 다치지 않도록 도와준다.

최근의류, 신발, 가방 등에 미아 방지를 위한 기능성이 가미된 제품이 증가, 미아 방지 유치원복 또한 눈길을 끈다. 리틀스마트는 업계 최초로 미아방지 NFC 태그를 부착한 원복을 선보였다. 유치원복에 부착된 와펜을 통해 리틀스마트 아이 안심찾기 웹에 아이 및 보호자 정보를 등록한 후, 스마트폰의 NFC 기능으로 와펜을 스캔하면 보호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부모들이 아이들 걱정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획일화된 디자인 No!

대부분 활동복으로 디자인된 획일적인 유치원복에서 벗어나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학부모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리틀스마트는 프리미엄 원단을 사용한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의 클래식 라인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스포티(Spoty) 라인으로 구성해 학부모들의 취향에 맞게 유치원복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코트, 롱패딩, 패딩 조끼 등의 유치원복과 잘 어울리는 아우터를 갖춰 아이들이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등·하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울·캐시미어 니트, 중성세제로 세탁하세요”

세탁라벨 확인해 의류 손상 줄여야
옷걸이에 거는 것보다 접어서 보관

최근 부드럽고 가벼운 착용감과 보온성이 탁월한 100% 울니트, 100% 캐시미어 소재 의류가 인기다. 그러나 보온성이 뛰어난 만큼 값이 비싸고, 재질이 약해 세탁 시 고민이 뒤따른다.

◆100% 울·캐시미어 의류 집에서 세탁하는 방법

14일 애경산업에 따르면 값비싼 의류를 올바르게 세탁하기 위해선 소재 별 특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울 소재 의류는 양털을 깎아 섬유로 만든 옷을 말하며 캐시미어는 염소의 털로 짠 고급 모직물을 말한다. 두 소재 모두 부드럽고 뛰어난 보온성을 가지고 있는 고가의 소재이며 털과 실 등의 소재가 강조된 의류는 어떻게 세탁하는지에 따라 옷의 수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세탁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울 소재 의류를 잘못 세탁할 경우 털이 빠지거나 뭉칠 수 있으며 옷이 줄어들는



애경산업 울삼푸 오리지널. /애경산업

등 변형이 생기기 쉽다. 또한 캐시미어와 같이 값비싼 소재 의류는 자주 세탁할 경우 의류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값비싼 고급 의류 세탁 시에는 의류에 부착된 세탁라벨을 확인해 소재에 맞는 세탁법을 확인해야 하며, 섬유 관리에 도움을 주는 중성세제를 사용해야 한다.

애경산업의 대표 중성세제 ‘울삼푸’는 국내 세탁세제 최초로 ‘울마크’를 획득한 중성세제로 알칼리성 세제보다 pH가 낮아 세탁 시 섬유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30° C 이하의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손 세탁하는 것이 좋으며 세탁기 이용 시

에는 세탁망에 의류를 넣어 세탁해야 섬유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울코스와 같이 섬세하고 부드러운 코스로 세탁하면 의류 손상을 줄일 수 있다.

◆값비싼 의류 오래 입을 위한 관리법

울 소재의 니트 의류는 옷걸이에 걸어 보관하기 보다는 늘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접어서 보관해야 한다. 습기가 많은 좁은 수납공간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한다.

옷장 등의 수납공간이나 의류에 배어 있는 냄새를 소취하기 위해선 옷장 전용 방향소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애경에스티 ‘에어후레쉬 옷장용’은 옷장 속 악취의 원인인 지방산을 분해해 옷장 속 냄새뿐만 아니라 옷에 배인 냄새까지 소취하는데 도움을 준다.

캐시미어 의류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신문지나 습기 제거용 시트를 옷 사이에 끼워 접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보풀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소재의 결을 따라 일회용 면도기로 조심스럽게 보풀을 제거해준다. /김민서 기자

삼양그룹, ‘iF 디자인 어워드 2019’ 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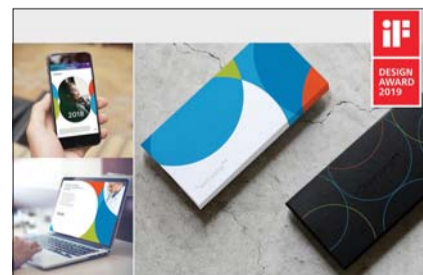
CI 로고 활용한 응용 사례 수상

삼양그룹은 ‘iF 디자인 어워드 2019’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1953년 시작된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하노버에 위치한 비영리 독립 디자인 기관인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이 수여

하는 상이다. 독일의 ‘레드닷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불리며 특정 국가나 기업의 원조를 받지 않고 시행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삼양그룹은 CI(기업 정체성)로고를 활용한 서식류, 문구류, 포장재 등 응용 사례를 지난해 개발하고 iF 디자인 어워드



에 출품해 각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67명의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수상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모바일 사업 확장... 전용 콘텐츠 선보일 것

신세계TV쇼핑

전용 스튜디오 오픈... 방송 효율 높여

신세계TV쇼핑이 모바일 커머스 촬영에 최적화된 모바일 전용 스튜디오를 오픈함과 동시에 모바일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새롭게 제작된 모바일 스튜디오는 약 30평의 규모로, 천장에 LED 조명을 설치해 별도의 조명 담당 인력 없이 한 명이 단독으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구현했고, 촬영 후 바로 편집 진행할 수 있도록 편집기를 스튜디오 내부에 설치했다.

여기에 화이트, 블랙, 크로마, 색지 컬러 세트 등 스튜디오 3면을 다양하게 구성해 공간 활용도도 높였다.

이로써 신세계TV쇼핑은 기존 2개의 방송 촬영 스튜디오를 포함해 총 3개의 자체 제작 스튜디오를 동시 운영함으로써 방송 효율을 한단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신세계TV쇼핑 관계자는 “모바일 전용 스튜디오 오픈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를 기존보다 2배 가량 더욱 늘려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